

야권 “희망의 빛없어…실망스럽다” 일제 격앙

박대통령 첫 시정연설 민주·진보·정의당 반응

“국정난맥 정치권에 책임전가…유체이탈 화법” 혹평

민주, 황교안·남재준·박승춘 해임안 오늘 제출키로

야권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첫 시정연설에 대해 “희망의 빛을 보지 못했다”면서 “말 씬은 많았지만 정답은 없었다. 미지근한 물로는 밥을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이같이 평가하고 “특히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난 1년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책임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운영 난맥의 모든 책임을 정치권에 전가시켰다”며 “여전히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엄중한 시국에 대한 단일한 상황인식을 그대로 보여줘서 실망스럽다”며 “취임 후 국가정보원과 법무부 등 국가기관의 잇따른 불법행위로 인해 정국 혼란을 초래해온 당사자임에도 최소한의 유감 표

명도 없이 국정운영 난맥의 모든 책임을 정치권에 전가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규모 빚더미 예산편성, 경제민주화 후퇴, 복지공약 파기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그저 자화자찬식 업적나열에 그쳤다”며 “국정운영 비뚤한 국가기관 대선 불법 개입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언급을 끝까지 피했고 재발 방지 약속도 구체적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다만 박 대통령의 태도가 일정 부분은 변화된 것으로 보고 일말의 기대감을 보였다. 김 대표는 “다만 대통령이 최근 야당이 제기한 여러 문제를 포함해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으면 존중하고 받아들인다고 말한 점을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 존중의지를 밝힌 것과 ‘셀프개혁’으로 일관하던 태도에서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은 진전된 변화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기류 때문에 이날 예정된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이 잇따라 취소됐다. 우선, 오후 개최 예정이던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 서울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민주파괴, 민생파탄, 약속파기’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삼성동 아파트 엘리베이터 충돌 사고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국회 보고가 모두 취소됐다.

지도부 차원의 ‘보이콧’까지는 아니지만 시정연설 이후 야당 내에서 실망스럽다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일단 상임위 일정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부위원회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고발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이날로 예정된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시정연설에 대한 실망감은 다른 야

당도 마찬가지였다. 통합진보당 의원은 회견을 열어 “한마디로 지독한 ‘불통시대’를 확인한 것에 불과했다”며 “은 국민이 제기했던 국민적 의혹에 대한 답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30여분 간 요란한 빈 수레를 지켜보고, 알맹이 없는 동어반복만 들어야 했다”며 “후퇴한 민주주의, 폐기돼버린 복지·민생에 대해 어떤 해법도 들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만 이 (국정원 등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서 기대에 못 미쳤다”고 말했다고 윤태곤 보좌관이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19일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추결건의안을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 “野 요구 상당 부분 수용”

법안·예산안 처리협조 압박

새누리당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며 각종 민생·경제활성화 법안과 새해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강하게 촉구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시정연설 직후 브리핑에서 “야당이 제기한 문제 등에 대해 국회가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주면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언급을 거론하며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주장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별검사 도입과 국가정보원 개혁 국회 특위 구성 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여야 합의시 수용가능 입장을 밝힘으로써 사실상 상 야당의 요구를 간접 수용했다는 게 새누리당의 해석이다.

유 대변인은 “이제 국회가 화답할 차례다. 정쟁을 접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라면서 “국정 발목 잡기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진정성 있는 설명을 하고 소통을 강조하는 등 간절함이 배어 있는 시정연설을 한 것

으로 평가한다”면서 “여야는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회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 역시 시정연설 직후 구두 논평을 통해 “미래로 나가는 로드맵을 제시했다”면서 “정쟁을 그만 두고, 국민통합과 민생 법안 처리를 통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나가자는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역대 4번째로 시정연설에 나설 정도로 민생 현안 해결이 절실한 만큼 야권도 이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정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거듭 압박한 것이다.

앞서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의회 존중의 기풍 진작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국회도 환영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경청함으로써 예산 국회의 출발점이 되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보다 중요한 책무는 없는 만큼 오늘부터 여야가 민생을 향해 손잡고 나가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의원-靑 경호실 직원 몸싸움

박근혜 대통령의 18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 직후 국회 본관 앞에서 강기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날 몸싸움은 민주당이 규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국회 본관 앞에 세워진 청와대 차량을 옮겨줄 것을 청와대 직원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고 이 와중에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경호실 직원에게 목덜미를 잡히고 경호실 직원은 입술이 터졌다.

강기정·노영민·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6명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박 대통령 시정연설을 규탄하는 집회를 준비하던 중 국회 본관 앞 돌계단 위에 주차된 청와대 차량 3대를 발견, 현장에 있던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에게 “집회를 해야 한다. 대통령도 국회를 떠났으니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경호실 직원들은 “다른 차들이 먼저 나간 뒤 빨리 테니 기다려달라. 지금은 못 뺐다”고 맞서면서 양측간에 충돌이 시작됐다.

강기정 의원이 “차를 빨리 빼라”며 차량을 발로 찼고, 경호실 직원이 강 의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면서 현장에 있던 민주당 인사들과 경호실 관계자가 뒤엉켜 고성과 몸싸움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경호실 직원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회에도 방호원 등 경비대원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국회의장, 부의장이



노영민 민주당 의원(왼쪽)이 18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청와대 경호부대 소속 경찰에게 항의하고 있다.

차를 대고 의원들이 출입하는 본청 현관 입구에 경호대원들이 차를 대서 시정 앞 ‘명박산성’처럼 ‘산성’을 쌓는 나”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 경호실은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강 의원의 폭력행사에 대해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광주시 선관위, 투표만족지수 개발

전남도 선관위 ‘새내기 유권자 연수’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 대한 투표서비스 확대 방안으로 투표만족지수(VSI)를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투표만족지수(VSI·vote Satisfaction Index)는 투표서비스에 대한 대표성 있는 설문을 토대로 선거별·지역별·성별·연령별 등에 따라 투표만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말한다. ▲선거정보 접근성 ▲투표장소 접근성 ▲투표절차 용이성 ▲투표환경 만족도 등 4개 측정지표로 설계됐고, 선거일 후 유권자 설문조사로 측정하게 된다.

광주시 선관위는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각종 공직선거 종료 후 투표만족지수를 측정해 유권자 위주의 선거서비스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연구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영택 시 선관위 사무처장은 “투표만족지수와 유권자 위주 투표관리 모델 개발로 품격 있는 투표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병우)는 18일부터 대·중·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새내기 유권자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전남도 선관위 주관으로 전남도 내 22개 시·군에서 운영되며, 18일 광양여고를 시작으로 다음달 5일 순천고등학교까지 총 22개 학교 372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새내기 유권자 연수’는 선거연수원 초빙교수 등 4명이 수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생들에게 ‘새내기 유권자의 주변행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유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행사’ 등을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전남 선관위는 이번 ‘새내기 유권자 연수’ 외에도 88개교 4069명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리더 연수를 실시했으며, 미래유권자인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별 고정강좌도 11개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에서 1995년 6월 5일 이전 출생자는 선거권을 갖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신도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 상가건물이나 땅 삽니다 ■
금매로 팔아야할 상가나 땅이 있으시면 저희 부동산에 전화 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일에 ! 높은 가격에 ! 바로 처분해 드립니다.

상가건물 매매

- 주월동 대지 2,000㎡, 건물 2,020㎡. (수익률 10%) 대출 16억5천포함. 매매가 38억.
- 쌍촌동 대단위아파트단지 내 대지 350㎡, 건물 996㎡ 매매가 16억.
- 신창동 대지 488㎡, 건물 966㎡ 매매가 15억 (공실없음)
- 풍암동 상업지역내 위치 좋은 신축상가 대지520㎡, 건물 3,135㎡ 대출28억 포함. 매매가 42억.

토지 매매

- 남구 주월동 대지 3,768㎡ 도시형생활주택, 소형빌라 신축적합 매매가 32억.
- 광산구 수완동 수완자동차매매단지 입구. 전 2,230㎡ 광고효과 최고. 물류센터, 타이어 적합. 매매가15억.
- 화순군 동면 오동리 전, 임야. 계획관리지역 17,730㎡ 매매가 2억9천만원.
- 나주시 부덕동 2차선 도로접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전 2,350㎡ 건축가능. 투자적합 매매가 1억9천만원 (금매)

바쁘시더라도 대면해서 상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 만큼 보답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 062-513-4985, 010-2338-3113

원룸전문(전대1분)

★전대 상대 농대1분★

- 룸11개(1층 상가) ◦ 월수익 420만, 준공완료
- 매가 5억9천(보증금 2000, 용 1억2천)

★전대 정문 1분★

- 룸18개(만실) ◦ 월수익 600만
- 매가 6억9천(보증금 2억, 용 1억2천)

★전대상대2분 용봉지구★

- 룸19개(1층 상가, 주택1개)
- 월수익 850만 ◦ 매가 12억(용 4억)

★화정동 APT 입구 코너★

- 1층 상가, 2층상가, 3층룸9개, 4층룸9개
- 월수익 1300만 보3억 ◦ 매가 19억

★남구 백운동 ★

- 룸15개(주택1개) ◦ 매가 8억8천

★전대정문 1분 ★

- 룸15개 (만실) ◦ 매가 6억3천 (보증금 4천 월510, 용 1억2천)

신한공인중개사
H.P. 010-6670-9800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환상의 섬

단독(해남군소재)

평수

약 2000평
계획관리

차량진입, 가로등,
선착장, 방파제 설치됨

100%개발가능

(주택, 펜션, 기타 등)
주변 별장, 단독주택, 민가, 펜션있음

매가

평당 30만원
(협상가능)

◎주인 직 매◎
010-9247-9240

공장매매

전남 장흥군 장평면
장평농공단지내

토 지: 4,864㎡
공 장: 375㎡
사무동: 161㎡
기계장치일체

용도
특수시멘트(물탈등)
제조공장

매매가액
3억원

조성중인 장평2농공단지
(2014년 6월입주가능)
토지분양가
평당 222만원

연락처 : 017-602-1948

신축원룸

(전대·상대·농대 쪽문앞)

원투룸

14개를 ▶11개로
최고위치!

1층상가

(2~4층 원투쓰리룸)

등기완료

(전면대리석, 벽돌집)

보증금 3천 월435

(연 5천2백)

매가 5억9천

(용1억3)

수완지구 상가

1층매매(17.5평)
3억5천

3층매매(85평)
3억2천

1층임대 (18평)
보3천 월130만

3층임대 (86평)
보3천 월190만

☎062)527-7600